

작년 中企규제 2200건 뜯어고쳤다... 개선 성과 76% 늘어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리사 식품위생 교육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 직면 33건 민생규제 개선 택시기사 차고지박 교대 금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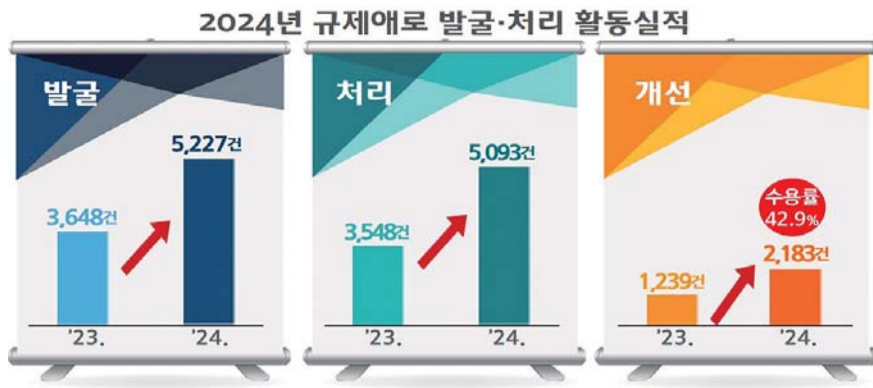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올린 규제개선 성과 건수가 전년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재 옴부즈만은 “25년에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한 기업 규제애로 건수가 5100여 건, 개선한 건수(일부 수용 포함)가 2200여 건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발굴 건수는 1600여 건(43.3%p ↑), 처리 건수는 1500여 건(43.5%p ↑), 개선 건수는 900여 건(76.2%p) 각각 늘어난 수치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



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1월10일), 국무회의(1월21일), 국회(1월31일)에 각각 보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개선 ▲입지·건축 지방규제 일괄정비 ▲현장밀착 핵심규제 협업개선 등에 집중했다.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단축(6→3시간),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3→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 개선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전자의 차고지 박 근무교대 금지 규제를 전면 폐지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직결되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했다.

▲1일 5~10톤 미만을 사료·퇴비화하는 중·소규모 축산농가 현실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

담 경감 ▲직접생산 확인(중소기업간 경쟁제품)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하면 개별기능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 ▲중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 KC안전기준 마련해 혁신기업 지원 등의 성과도 거뒀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내 협업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전국조합 발기인수 50→30명 등),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도 각각 이루어졌다.

최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고 ‘사석위호’ 정신으로 지자체·공공기관 협업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실과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3년형 내일채움공제 출시 세제지원 등 혜택은 동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새로 내놨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최소 ‘1224만원+α(운용수익금)’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재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위아 “협력사와 상생... 모빌리티시장 적극 대응”

‘파트너십 데이’ 협력사 122곳 참여 열관리시스템 등 기술강화 방안 공개

현대위아가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협력사 성장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지난 7~8일 제주도 서귀포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2025년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고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파트너십 데이는 현대위아가 주요 협력사와 함께 경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파트너십 데이에는 총 122곳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현대위아는 경영 비전 발표에서 통합 열관리 시스템 등 기술 경쟁력 강화



현대위아 정재욱 사장이 지난 7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2025년 파트너십 데이’에서 현대위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을 공개했다. 현대위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전기차용 공조 모듈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듈은 기아의 PV5에 탑재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이후 배터리 및 모터 열

관리 모듈과 공조 모듈을 더한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등속조인트와 4륜 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완성차 대상 영업 강화 방안도 공유했다.

현대위아는 품질과 수익성 강화 방

안도 밝혔다. 품질의 경우 선행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나가며 모든 제품의 단계별 수익을 검토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협력사가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동반성장 펀드를 더욱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린 90개사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협력사의 수출입 업무 지원, 안전과 보안관리도 돕기로 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으로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현대위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부, 펩리스 스타트업 30곳 선발·지원

6개사에 기술사업화 자금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펩리스 스타트업 일관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30곳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펩리스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혁신적 반도체 설계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기술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달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Micro 초격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개발기-

성장기-스케일업 등 3단계로 나눠 총 30개의 유망 펩리스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한다.

개발기 단계 6개사에는 기술사업화 자금 1억원과 설계 자산(IP-EDA Tool) 및 투자 유치를 위한 IR 기회 등을 제공한다.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성장기 단계 20개사에는 기술사업화 자금 2억원과 시제품 제작(MPW) 공정, 국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협업 기회 등이 주어진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고기술 보유 스케일업 4개사에는 기술사업화 자금 2억5000만원이 돌아간다. 반도체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 검증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품 검증 등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대동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여준구 박사

美 대통령상 등 수상 로봇 전문가

대동그룹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로봇 기업 대동로보틱스가 신임 대표이사로 항공대 총장 출신인 여준구 박사(사진)를 선임했다.

10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여준구 신임 대표는 미국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고, 120편 이상의 논문과 학술연구 저서를 출판한 로봇 분야 전문가다. 2014년 세계 최대 기술학회인 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 종신 석학회원(Life Fellow Member)으로 선정됐다.

여대표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로봇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하와이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정보통신학



과 교수 등을 거쳤다. 작업용 자율수중로봇 연구개발로 잘 알려진 오노모터스 시스템랩(Autonomous Systems Lab) 초대소장, 미국국립과학재단본부(NSF) 정보지능 시스템 프로그램 디렉터도 역임했다. 여 신임 대표는 “대동이 보유한 자율주행 트랙터, 정밀농업 등 농업 첨단기술, 오랜 기간 축적된 글로벌 마케팅 역량에 그룹사 대동AI랩과 함께 대동로보틱스의 AI기반의(AI-enhanced) 자율로봇 기술력을 극대화해 이를 접목시켜 그룹이 AI 기반 지능형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인테리어 시공프로 모집 교육·현장실습 등 진행

한샘이 홈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시공프로’를 모집한다.

10일 한샘에 따르면 시공프로는 현장에서 인테리어 상품을 직접 시공하는 전문가다. 기존에는 시공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술자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샘은 55년 노하우와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을 담은 자체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개발해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상시 모집하는 시공프로는 부엌과 욕실(바스) 부문으로,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구직 서비스나 네이버에 ‘한샘아카데미’를 검색해 지원할 수 있다. 시공프로에 지원해 합격하면 전국에 위치한 한샘 아카데미에서 약 3주간 신입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론, 기술, 서비스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안전교육, 공사 사용 요령, 시공 이론과 실습 교육, 고객감동 서비스 교육 등 시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후 시공 기술자를 보조하는 조수로 6개월~1년 동안 현장 경험 및 실습 교육을 받는다. 시공 능력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시공 전문 기술자인 사수가 되고, 이후 기술을 고도화시켜 한샘의 시공 명장이 되거나 자신만의 회사를 차릴 수 있다. /김승호 기자